

# 만 6~8세 급격히 진행... 눈 자주 찡그리면 '근시' 의심



## 건강 바로 알기 어린이 근시

이태희

보리안과병원 원장

만약 아이가 찡글 찡글하게 흐리다고 말하거나, TV를 시청할 때 잘 보이지 않아 눈을 찡그린다면 근시를 의심해봐야 한다. 근시는 물체의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굴절이상이다. 만 6-8세부터 급격히 진행되는데,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도근시로 이어지기 쉽다.

고도근시는 망막변성, 시신경 기능 약화 등을 유발하고 망막박리, 녹내장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한번 나빠진 근시는 되돌릴 수 없어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이가 근시인 경우 어떻게 진행을 막을 수 있을까.

◇약물 치료와 렌즈 착용=먼저 저농도 아트로핀 약물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 매일 혹은 격일 투여하는 방식으로, 눈 상태에 따라 취침 전 한 번 정도만 점안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0.05%의 저농도 아트로핀이 치료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늦어지면 고도근시로 이어져 수면시 착용 특수콘택트 '드림렌즈' 저농도 '아트로핀' 약물치료 도움 스마트폰 줄이고 야외활동 늘려야

만 4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점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드림렌즈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다.

하지만 드림렌즈와 달리 시력교정 효과가 없어 평소 안경이나 렌즈 착용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효과를 확인하며 사용해야 한다. 제때 점안을 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투여 후 눈부심이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드림렌즈는 수면 시 착용해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근시와 난시를 교정해주는 특수 콘택트렌즈이다. 일반 렌즈와 달리 가운데 부분이 주변부 보다 평평해 수면 시 각막의 중심부를 눌러 각막의 굴절력을 낮춰준다. 착용하고 자면 다음 날 정상시력을 찾을 수 있어 안경 없이 생활이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기에 사용할 경우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어느 정도 수면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등

학교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드림렌즈는 아트로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거리 시력저하, 눈부심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없고 시력교정 효과로 안경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정도를 착용해야 하고, 하드렌즈 특성상 적응시간이 필요해 아트로핀에 비해 불편할 수 있다.

'근시 억제용 소프트렌즈'는 드림렌즈에 비해 초기 착용감이 편안하고 매일 낮에 착용하고 세척이 필요 없는 일회용 렌즈로 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또 필요에 따라 안경과 번갈아 가면서 착용이 가능하다. 듀얼포커스 디자인으로 근시 교정준과 근시 완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굴절이상을 교정하고 안축장 성장을 늦춰 근시진행을 완화하는 원리이다.

아이들이 혼자서 착용하기 용이하고 드림렌즈보다 근시교정폭이 넓어 10디옵터 가량의 고도근시까지 처방이 가능하지만 난시가 있는 경우 교정하기 어렵고 착용 시간이 길어 건조감이 조금 더 유발될 수 있다.

◇치료시 주의 사항과 생활 속 시력 관리=근시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들은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게 될 경우 급격히 근시가 진행되는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보리안과병원 이태희 원장이 소아근시 환자의 눈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부터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기 어린이의 시력 변화는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근시 예방 및 건강한 눈 발달을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고 독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일정 시간 사용

후 휴식을 가지며, 하루 40분 이상의 낮 시간 동안 야외활동이 근시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이 근시이면 자녀도 근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조기에 진료를 받아 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비폴리머 약물용출 스텐트' 상용화 탄력

정명호 보훈병원 부장 최초 개발 혈관 회복율 100%·부작용 0건 임상결과 26일 국제학술지 공개



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해주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타이거레블루션은 스텐트의 중합체인 폴리머를 사용하지 않고 이산화 티타늄(TiO2)으로 대용량 약물 방출 스텐트다. 약물 방출 스텐트는 과거 스텐트와 비교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후 재협착을 현저히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폴리머로 인해 혈관 회복이 지연되거나 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이 폴리머를 훨씬 더 많은 이산화 티타늄으로 대체해 폴리머와 혈관벽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이 스텐트는 동물실험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이언스 스텐트보다 우수함이 증명됐으며, 관련 논문도 국제심장학회에서 발표됐다.

연구진은 "임상 시험 8개월차에 단 한건도 심혈관 부작용이 없어 안전성이 입증됐다"면서 "혈관 회복율도 완벽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만큼 타이거 레블루션의 상용화가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명호(현 광주보훈병원 부장·사진) 전 전남대병원 교수팀이 최초 개발한 비폴리머 약물용출 스텐트인 '타이거 레블루션' 스텐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 임상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제품은 정명호 교수팀이 2016년 개발해 미국 특허를 등록한 뒤 시지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한 스텐트다. 국내 연구진과 기업이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한 비폴리머 약물 용출 스텐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 연구결과 타이거 레블루션은 혈관 회복율이 100%에 달했으며, 심혈관 부작용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산 비폴리머 약물 용출 스텐트에 대한 첫 인체 임상 시험 결과가 8월 26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에 공개됐다.

스텐트 명칭에 '타이거'를 붙인 것은 정명호 교수가 프루야 KIA-기아타이거즈의 팬으로서 타이거즈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해 시

## 전남대병원 '아시아 심혈관심포지엄' 참석...특강·최신 연구 발표

전남대 안영근 교수 주도 설립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김진호·사진)은 지난 4월 6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 6회 '아시아 심혈관심포지엄'(ACS)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아시아 심혈관심포지엄은 미국심장학회 주관 심혈관학회 사전 심포지엄 성격으로 열렸다.

ACS는 대한심장학회와 중국 심혈관연구학회, 일본 심혈관연구학회, 남아시아 심장협회가 매년 개최 및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ACS는 특강 및 초청강의, 최신 연구발표를 비롯해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 연구상도 수여하고 있다.

아시아 심혈관 연구자들 사이의 과학적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ACS는 안영근 전남대 교수의 주도로 설립됐다.



안 교수는 대한심장학회 기초과학연구회 회장이었던 지난 2019년 당시 미국 내 한인 연구자를 대표해 미국 예모리대학교 윤영섭 교수와 함께 제 1회 ACS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 심포지엄은 안영근 교수의 기초연설을 시작

으로 박준근 교수(가톨릭대)와 윤소미 교수(전남대)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이후 국내외 연구자들의 심혈관질환의 이해와 치료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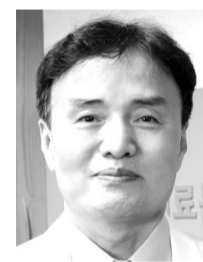
## 조선대병원, 심평원 '급성기 뇌졸중 평가' 10회 연속 1등급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사진)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10차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10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조선대병원은 종합점수 99.6점으로 전체평균인 88.13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 최우수 의료기관 상위 20%로 선

정됐다.

심평원은 급성기 뇌졸중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6년부터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를 실시했고 평가를 통해 기관의 자발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의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이번평가는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진료분에 대해 실시했으며, ▲Storke unit(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조기재활 평가·실시율 ▲퇴원 시 기능 평가 ▲입원 중 폐렴 발생률 등의 6개 평가 지표를 통해 실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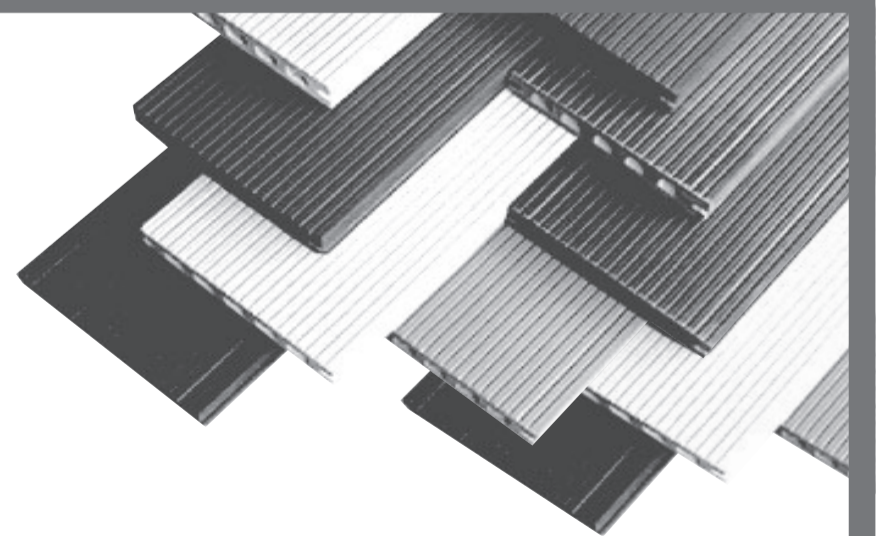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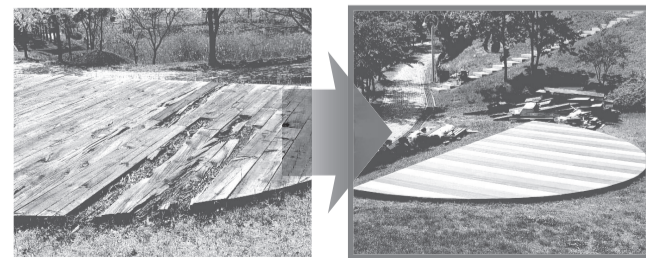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